

# 인천주보

제2473호 2017년 9월 3일  
연중 제22주일

교구장 사목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루카 22,19)



카라바조, 〈성 마태오의 영감〉, 1602년, 캔버스에 유채, 296x189cm,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 성당, 콘타렐리 소성당, 로마

제1독서 예레 20,7-9

화답송 시편 63(62),2,3-4,5-6,8-9(◎ 2ㄷ 참조)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2독서 로마 12,1-2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태 16,21-27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천주보를 볼 수 있습니다.



#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 찬미예수님.

사제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제가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생기는 고민은 ‘지금 이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사이에서 고민을 하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며 자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반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베드로가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보여준 모습은 결코 잘 못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임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하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리라 믿었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원로들과 수석 사제,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에는 맞지 않았으며 이는 그로선 지극히 인간적이며 사람의 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시각, 고정관념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서 생각을 바꿔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목숨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느님의 일을 위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도록 하십니다. 즉,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시각, 고정관념 등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매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2독서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복음 말씀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 편향된 시각, 고정관념 등을 버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흔이 넘은 노인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도 자기만의 좋고 싫음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보듯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사람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깨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든 이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놀림과 조롱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 다짐하는 예레미야지만, 주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그는 결국 놀림과 조롱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 신자분들도 주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중심에 둔다면 복음 말씀에 나온 베드로 사도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탄이라 불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인천전

#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 성 마태오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성 마태오(Matteo, 1세기경)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는데(마르 2,14)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오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으로 추정한다. 성 마태오는 카파르나움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 성 마태오의 직업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그를 경멸했다. 예수님이 그런 성인을 불러 자신을 따르라고 했으며, 성인은 즉시 일어나 세관을 떠났다. 성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첫 번째 복음서를 저술했다. 전승에 따르면, 성인은 흑해와 마케도니아, 시리아, 에티오피아에서 전교하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한다.

성 마태오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돈을 세고 있는 세리인 성인을 불러 “나를 따라라”라는 한 마디를 하자 성인이 자신의 장부, 돈, 돈주머니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다. 그리고 성인이 날개 달린 천사의 지도로 복음서를 쓰는 모습이나, 오직 깃펜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장면이다. 여기에선 그의 순교를 나타내는 도끼나 창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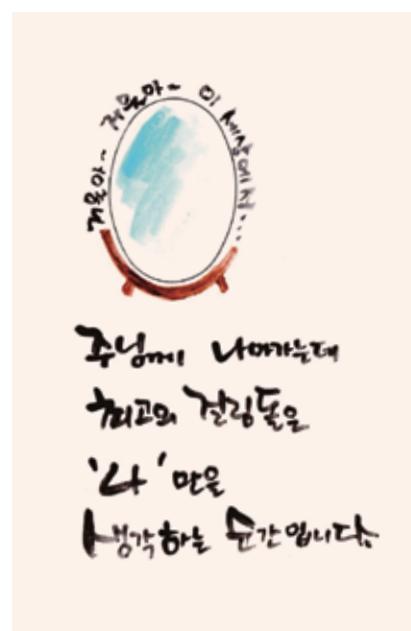
성 마태오에 관한 그림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가 로마에 있는 프랑스인들의 성당인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San Luigi dei Francesi)에 그린 〈성 마태오의 소명〉, 〈성 마태오의 순교〉, 〈성 마태오의 영감〉 작품이다. 카라바조는 17세기 유럽회화에서 혁신적인 미술가로, 밝고 어두운 대비의 강렬한 명암법 사용과 이전에 이상적으로 표현하던 종교적인 주제를 벗어나 사실적인 자연주의를 작품의 특징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도 화가는 극명한 명암으로 성 마태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작품 〈성 마태오의 영감〉을 보면, 화가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다. 글을 몰랐던 성 마태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복음서 작성에 지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깁감한 어둠 속에서 성인은 의자에 무릎을 느슨하게 올리고 있지만, 천사를 바라보는 성인의 시선은 강렬하다. 사실 카라바조가 성 마태오를 그린 첫 번째 작품은 지금은 소실되고 없지만, 그림 속의 성인은 늙고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그런데 주문자가 그 그림에 경의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하자 카라바조는 성 마태오를 다시 그렸다. 성인은 고대 철학자의 느낌을 풍기는 옷에 얼굴은 고귀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성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지상의 성 마태오와 천상의 천사는 서로 마주하며 교감하고 있다. 천상 공간에 자리한 천사가 성 마태오에게 불어넣는 영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이로써 마태오 복음의 신성함과 권위가 그림에 부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거니신 것처럼 거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성 베다 사제의 강론에서) 인천潮湿

축 일	9월 21일
수호성인	세관원, 은행가, 세금징수원, 회계원
상 징	천사(사람), 책

## 술 · 고 · 르 · 기



#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 찬미예수님.



지난주에는 ‘말씀을 공경하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체 조배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도자인 이연학(요나) 신부는 거룩한 독서에 관한 책『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를 썼습니다. 이 책의 31~33쪽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체 조배를 할 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지침을 던져줍니다.

**첫째, ‘연속 독서의 원칙’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체 조배를 할 때, 어느 말씀을 선택하여 읽을지 늘 고민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속 독서의 원칙’에 의해 말씀을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연속 독서의 원칙이란, 전례의 흐름을 따라 그날의 독서나 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또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의 책을 선정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 중 자신이 바라는 원칙을 선택하여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선택한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하거나 해치우듯이 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억지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이 늘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듯이, 말씀이신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있는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고 여유롭게 그분 안에서 쉬며 말씀을 듣기 위해 충분히 머물 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이 살아 숨을 쉬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읽었던 어느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코트를 벗기는 것으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바람은 점차 강도를 높이며 그 사람의 코트를 벗기기 위해 바람을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람에 코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꽉 붙들었습니다.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해가 나서서 점차 뜨거운 햇볕을 그 사람에게 내리쬐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코트를 벗었고 해가 내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성체 조배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과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할지를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시간 안에 해치우듯이 덤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참으로 살아 계신 하느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 계신 말씀이시기에 살아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시간을 두고 점차 사귀어 가는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이연학 신부는 이러한 여유로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광욕을 하는 사람처럼 필요 없는 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 말씀이라는 태양의 따뜻한 현존 아래에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며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쉬는 마음, ‘말씀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충분히 머물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인천教區

나병식 대건안드레아 신부 | 성체성지 전담

# ‘침묵의 순례지’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3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름이라도 알려진 순교자는 2천명도 채 안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를 위해 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는 2001년 강화도에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2002년에 한국의 순교자들 중 무명 순교자께 봉헌하였다.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봉헌할 당시 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는 현양동산이 위치한 강화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화도는 비록 작은 섬이기는 하지만 너무 크고 많은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보고이다.”

강화도는 천주교 역사에서 보더라도 강화도 해협을 통해 수많은 신앙의 중인들이 중국과 교류를 가져왔으며 지금의 강화성당 아래 지역의 군영지와 갑곶돈대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강화도 땅에 한국의 일만명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자 현양동산을 만들어 봉헌하고, 이 일에 참여한 일만위 순교자 현양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성모님께 바쳐진 성모당에서 성모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기원하며,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순교자 현양당에서는 순교자들의 용감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현양동산은 2004년에 설립한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과 인접하여 젊은이들과 자연과 순교자들이 어우러지는 순례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무명순교자들의 흔적을 묵상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무명순교자의 길이 있고, 묵주연못, 무명 순교자상, 십자가의 길, 일만위 순교자 현양탑, 성모당 등이 있다. 또한 1866년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홍봉주와 함께 참수 치명한 성 남종삼 요한의 유해를 모시고 있다.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은 ‘침묵의 순례지’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름조차 버림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침묵 중에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순례지이기 때문이다.

“순례의 시작은 침묵입니다” 이천주교

## 일만위 순교자 현양 기도문

- 아무것도 아닌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 신앙의 불모지서 복음의 밭을 이룬  
일만위 순교자들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 그 이름도,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의 무명(無名)  
순교자들이 당신을 만나 새로 태어났듯이,  
저희 또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을 뵙게 되었나이다.
-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셨듯이, 그들의 무명(無名)을 통하여 저희  
삶을 인도해 주소서.
- 이름조차 버림으로써 삶을 온전히 봉헌한 그들을  
본받아,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
-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버린 그들을 본받아,  
무의미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 당신만으로 부족함이 없던 그들을 본받아,  
보유의 늪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 당신만이 그들의 사연을 아시고, 당신만이 그들을  
위로해주시듯, 저희 삶의 여정에도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 마침내 무명 순교자들 앞에 선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를 읊어매는 욕망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순교자의 모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정신철 주교, 강화 꽃동네 프란치스코센터 축복미사 주례



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지난 달 18일(금) 오전 11시에 강화 꽃동네노인요양원 교황 프란치스코센터 축복미사를 집전했다. 축복미사는 오스발도 파딜랴 주한교황대

사, 장인남 미얀마 교황대사를 비롯한 성직자와 수도자, 교우 1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신철 주교는 강론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을 믿고 하느님의 시각으로 모든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이 실천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축복했다.

강화 꽃동네 교황프란치스코센터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은 피정의 집으로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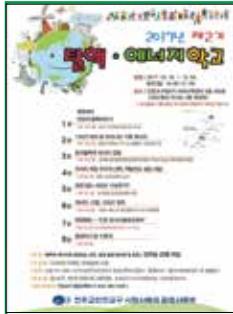
## 제95차 인천선택 주말 실시



청소년사목국(국장=이재학 신부) 청년부(부국장=서칠원 신부)는 지난달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심조이바르바라 피정의집

에서 제95차 인천선택주말을 실시했다. 미혼 청년들이 대화를 통해 자아를 찾았고, 소속감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인천선택주말은 1987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미혼 젊은이와 성직자, 수도자가 함께 모여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믿으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 혹은 친구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피정이다.

## 2017년 제2기 탈핵·에너지학교 개강 안내



핵발전의 안전성, 국내 전력 수급정책과 핵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찾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6회)와 1회의 현장탐방(업사이클링 에코센터)으로 이루어집니다.

- 개강일시: 2017년 10월 16일(월)
- 강의일정: 매주 월요일 19~21시(총 8회)
- 종강: 12월 4일(월)- 수료식 및 종강미사
- 장소: 가톨릭 사회사목센터 4층 대강의실
- 수강료: 7만원 (신협 131-002-127931 천주교 인천교구)
- 신청문의: 032-765-7255 · 주관: 교구 환경사목부

## 故 송주석 신부님 1주기 추모미사 봉헌



故 송주석 신부님의 1주기 추모미사가 지난달 24일(목) 오전 10시에 백석 하늘의문 성직자묘역에서 봉헌되었다. 정봉 신부(부개동 성당 주임), 조명연 신부(갑곶순

교성지 전담)를 비롯한 교구 사제가 공동집전한 추모미사는 웃은 날씨에도 약 12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정봉 신부는 강론에서 故 송주석 신부의 연혁을 소개하며 사목여정에 대해 떠올리고,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MBW) 한국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및 아시아 대표를 맡아 MBW 활성화와 소공동체 운동에도 힘썼던 생전의 모습을 기억했다.

## 갈산동 성당, 본당설립 40주년 영화제 개최



갈산동 성당(주임=이민우 신부)은 지난달 23일(수) 오후 8시부터 본당 대성전에서 3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단편 영화제를 열

었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의 고통을 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고통과 어른으로서 요구되는 행동과 태도를 제시하는 ‘여름밤’, 60년대 학교에서 가정형편과 도시락으로 인한 선생님의 차별을 그린 ‘눈물 젓은 뺨’ 등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를 통해 현실을 심충적으로 다룬 2016년 가톨릭 영화제(CaFF) 수상작 4편과 이민우 신부의 작품 ‘눈물 젓은 뺨’이 상영되었다.

상영에 앞서 이민우 신부는 “영화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묵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상영후에는 5명의 감독들과 관객이 영화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감독의 의도와 장면에 대해 해설하며 심도있는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 인천교구 성모 순례지(성모당) 조성 및 봉헌 모금 방법

인천교구 성모 순례지(성모당)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 일반후원 25만원 / 우수후원 100만원 / 특별후원 1,000만원
- 현(現) 모금현황: 858,479,491원 (8월 27일자)  
(사제특별기금 234,712,000 포함)
- 계좌: 신협 131-018-148137 <예금주: 천주교 인천교구(성모당)>
- \* 성모당 완공 시, 봉헌판에 이름과 세례명을 올릴 예정이오니, 입금시 이름과 세례명을 기재해 주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관리국 032-765-6975 / 6982, 사무처 765-6961 / 6943

